

지난해 가격 강세에...전남, 양파·마늘 재배면적 늘어

각각 4.7·0.4% ...양파는 전남, 마늘은 경남이 가장 많이 증가 양파가격 1년전보다 33.5% ↑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 나서

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남에서 지난해에 걸쭉 울해 양파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마늘 재배면적 또한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지난해 마늘과 양파 가격이 강세를 보인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소에 따르면 '2023년 산 전국 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1만 7521ha)보다 2.7% 증가한 1만 7986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재배(의향) 전화조사 결과보다 2.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품종별로는 지난해보다 중만생종은 3.3% 증가한 1만 5030ha, 조생종이 전년보다 0.6% 감소한 2956ha, 중단생종은 3.3% 증가한 1만 5030ha였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은 4.7%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조생종 재배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확 기간이 비교적 빠른 조생종 양파의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이 면적 3000ha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조생종양파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출하기 가격 상승 영향'을 꼽았다.

다만 올해 전국적인 양파재배면적은 1만 9511ha 수준인 평년(2018-2022년)과 비교하면 7.8% 감소한 수치다.

전남지역은 마늘 재배면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산 마늘의 전국 재배면적 실측 결과 전년(2만 3686ha)보다 4.0% 증가한 2만 4629ha로 집계됐다.

품종별 살펴보면 주로 중부지역에서 재배되는 한지형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4581ha,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는 난지형은 5.2% 증가한 2만 48ha로 나타났다. 난지형에 속하는 대서종은 전년 대비 10.5% 증가, 남도종은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마늘재배면적이 0.4%, 대서종 비중이 높은 경남(9.9%)과 경북(5.6%)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충남지역 또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경

북과 충청지역에서 난지형(대서종) 마늘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출하기 가격상승 여파로 올해 재배면적이 늘어난 양파는 최근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양파는 kg 당 가격이 지난해 하순 2743원으로 1년 전보다 33.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파 가격(15kg)은 지난 17일 기준 2만 3660원으로 평년 1만 4360원이 견줘 약 1.6배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이유로 2022년 산 중단생종 생산량 감소를 꼽았다. 농식품부는 매일 정부 비축물량 30~8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올해 할당관세 물량(2만t)을 조기 도입하는 등 가격 안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사고근절·청렴구현 '3행3무 실천운동'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최근 전남농협 시군지부 역량강화교육에서 윤리경영을 통해 '농협 사고 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3행 3무 실천운동'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으며, 전남농협은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을 전 시군으로 확대 대해 농협 청렴문화 재건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3행 3무 실천운동'은 농협 임직원의 실천사항 3가지 ▲정원(원칙을 지키며 처신하기) ▲소통(생각을 공유하며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와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금지) ▲갑질(우월한 지위의 남용금지) ▲성희롱(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성적인 언행 금지) 등 근절사항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은 국민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요구받는다"며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농협 구현을 위하여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업 발전 첨단화 체험... '2023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 개막

오늘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농특산품·중기제품 홍보·판매도

'2023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사진>

올해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특별후원으로 열린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는 지난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갈수록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 첨단 농업, 스마트팜 등으로 추세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농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이룸의 비닐하우스 온풍기 및 무인방제기, ㈜정성텍의 대형 복합기, ㈜희망농업기계의 축산기계, ㈜대천농기계의 최신 트랙터 등 광주·전남지역 농업벤처기업들의 최신 제품이 소개됐다. 또 '우수농특산품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전도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7월에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겨울철 농한기인 2월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농업인들의 전시회 방문이 증가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호남지역은 광



역시 중심의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띄고 있고 영농인구의 비중이 높아 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번 전시회는 영농인들에게 농업 발전 및 첨단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농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호남을 대표하는 농업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농협,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7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고성신 본부장과 장세득 회장을 비롯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결의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상생의 기회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선도적인 참여와 홍보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삼도농협 황금숙 분회장이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황금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의 소외된 이웃을 가까이서 돌보는 섬세하고 꾸준한 봉사 활동이 큰 위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며 "광주본부도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